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발행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775-9122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발행일 • 2019. 1. 23.

발행인 • 이제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획 • 베스트베이비

디자인 • 디자인숲

일러스트레이션 • 황재선(노랑선)

인쇄 • 서울교육인쇄

ISBN • 978-89-85648-99-8 :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9001752

- 본 책에는 본상 수상작 179편 중 30편을 선정해 게재했습니다.
- 각 수상작은 분량에 맞추고자 2,000자 내외로 편집했으며,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의 인적 사항(학교/학년/이름)은
2018년 7월 공모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 차

발간사	8		
심사평	10		
내 인생을 바꿔주신 회정 쌤께	14	76	가벼운 어른이 된다는 것
교장 선생님은 마술사	18	80	인생의 멘토 선생님께
나의 슈퍼히어로	20	84	내 기억 속의 외할아버지께
우리 세원이 멋져부러!	24	86	평생 부르고 싶은 그 이름
나의 위인에게 드리는 약속	28	90	제 꿈에 당신의 꿈이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엄마 딸 할래!	34	96	엄마 생각에 눈물이 그렁그렁
선생님은 훌륭한 조연자	38	100	정말 정말 사랑해요, 부모님!
멋진 동네 제빵사, 우리 아버지	40	102	믿음 8기 제자가 사랑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나를 살려주신 할머니께	44	106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부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엄마, 아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48	110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멘토, 박지영 선생님	54	116	제겐 너무 소중한 주연 선생님께
사랑하는 할머니	58	120	나의 바람, 종이비행기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	62	124	나의 나무, 당신의 나무
해 질 녘 아름다운 풍경 같은 우리 할머니	66	128	그리움이 닿는 곳에
진짜 용기를 가르쳐주신 전성태 선생님께	70	132	유난히도 힘든 날 지켜준 너

우리는 대부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스승이 있습니다. 늘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 든든하게 곁을 내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따듯한 위로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까지, 정신적 스승은 삶 곳곳에서 내 영혼의 나침반이 되어주며 나의 행동과 마음의 지표가 되어주지요.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교육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함께 개최한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11만218통의 사연에는 정신적 스승이 되어준 고마운 이에게 전하는 우리 아이들의 따듯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집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마음의 스승을 만나 배우고, 꿈을 키워준 스승에게 감사를 전할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가진 어른으로 올곧게 자라고 있더군요.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마음의 스승은 물론, 아이들이 감사편지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편지뿐 아니라 마음을 전할 방법은 다양하지만 직접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가 더욱 쉽지 않지요. 함께 있어 모든 것이 즐겁고 더 푸르렀던 나날. 씩스럽고 새삼스러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듯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아이들의 삶이 좀 더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도록, 또한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에게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하며 세상에 사랑과 존경의 메아리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따듯한 '감사 이야기'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 훈

안녕하십니까!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홍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표현하는지요. 건강하게 활동하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을 나눌 때 등등 감사한 일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감사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바쁜 일상에서 이러한 순간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요?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일상 속의 고마운 순간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과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지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기만 해도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감사편지를 쓰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친구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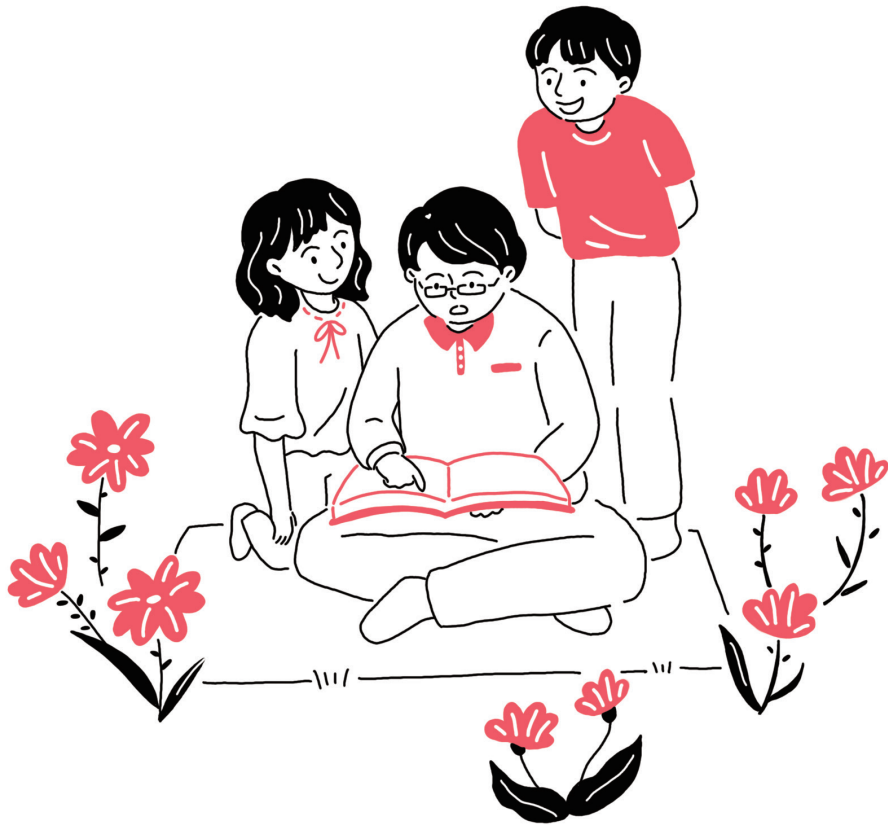
스승님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준 11만

여 명의 아동 및 청소년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참 행복했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는 편지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일을 맡았으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추억에는 점수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와 격려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복을 가꾸어가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모전을 위해 애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교육부, MBC,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심사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편지 쓰기를 통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심사위원장 김 홍 신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받은 사랑만큼
저도 꼭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내 인생을 바꿔주신
희정 쌤께

전북 고창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김가은

교장 선생님은 마술사

부산 중현초등학교 5학년 5반 제은경

나의 슈퍼히어로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3학년 3반 이효정

우리 세원이 멋져부러!

충북 원봉초등학교 6학년 1반 조세원

나의 위인에게
드리는 약속

전북 서영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최은소

내 인생을 바꿔주신 희정 쌤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의 첫째 딸 가은이에요. 선생님께 하고 싶었던 말, 특히 만나서 할 수 없었던 말을 이렇게 편지로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을 때 선생님을 딱 처음 만났잖아요. 학교에서는 적응 못하는 저를 방황하는 문제아로 취급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중 잘 대해주신 분도 몇 명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가 느끼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반에는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없는데다가 친했던 애들은 저와 같이 방황하던 아이들이었어요.

한번은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왜 네가 그런 애들과 어울려야 해?”라는 말과 함께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예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학교에 나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담임선생님께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를 하고 집에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겉으로만 다독여주지 않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김가은’이라는 저를 친딸처럼 받아주신 분

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항상 먼저 말 걸어주시고 제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시던, 늘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선생님! ‘선생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나를 응원해주시는 선생님께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빠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선생님을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 되었어요.

지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인데 한 번씩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한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무단결석이나 조퇴는 단 한 번도 없고 반에서 실장도 하고 동아리 부장도 맡았어요. 성적은 2등급까지 올라갔어요! 요즘은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 선생님들이 색안경을 벗고 다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줘요.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이예요.♡

고등학교에서 방황하는 애들이 저희 반에 5~6명 정도 있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겪어봐서 그 친구들 마음을 더 잘 알 거 같아요. 자퇴한다고 하거나 학교에 안 오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저도 선생님처럼 그 친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 다짐했어요.

애들 아침 안 먹었을까 봐 김밥 20줄을 싸 가서 먹이고, 공부나 수행평가도 도와주고 밤마다 문자로 '오늘 학교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넌 진짜 최고야'라고 꾸준히 보냈더니 지금은 자퇴한다는 애들이 저희 반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동기 부여가 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한 친구가 제게 "나는 너 덕분에 학교 잘 나오려고 다짐했어"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힘나게 하더군요.

세상에 나쁜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방향을 할 뿐 그 애들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같아요. 항상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득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맨날 카톡으로 학교생활 물어봐주시고 맛있는 밥 사

주시고 마음을 안아주는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청소년상담사'라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가은 · 전북 고창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 이 글은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술사

“사랑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5학년 5반 미소가 아름다운 제은경입니다. 아침 등굣길에 맞이해주는 교장 선생님을 볼 때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까만 피부에 밀짚모자 그리고 분홍색 한복. 처음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촌스러워 저도 몰래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난봄 학교 텃밭에 직접 모종을 심은 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저는 그때 토마토를 받았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교장 선생님에 대한 저의 마음도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껴요. 또 빨갭게 익은 토마토를 따 먹을 생각을 하니 입안에서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교장 선생님은 마술사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면 정말 오케스트라 단장님 같아요. 지난 5월 어린이날 우리에게 오카리나를 선물로 주시고 직접 연주하는 법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못하면 혼날까 봐요. 하지만 쉽게 가르쳐주셔서 금방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은 아리랑, 에텔바이

스 등 여러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지난번 제가 학교 대표로 캐릭터 그리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직접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힘찬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코팅도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 선생님 사진을 코팅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다음에는 더 크게 해서 교장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받은 사랑만큼 저도 꼭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인생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한 소중한 경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같은 교장 선생님, 나의 롤모델 채석도 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은경 · 부산 중현초등학교 5학년 5반 · 이 글은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나의 슈퍼히어로

엄마,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엄마란 존재는 어떨 때는 슈퍼맨보다, 원더우먼보다 더 강하고 강한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되면 지금의 엄마처럼 내 아이들에게 수호신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죠?

엄마의 이름에는 강한 힘이 느껴지고 지금도 여전히 엄마는 내게 힘이 센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엄마에게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 저는 사실 부끄럽고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엄마는 저를 업고 할머니 댁과 친척 집에 찾아가 울면서 사정하고 길병원 사회복지과에 가서 우리 집의 가난한 사정을 일일이 말씀하셨죠. 저는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사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건 엄마 자신보

다 나를 고쳐주겠다는 그 소중한 마음, 즉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랑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그 자존심마저 던져버릴 때 더 강하다는 것을 저는 엄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낡다 못해 곧 쓰러질 것 같은 빌라에 살 때 저는 단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내 방도 없는 단칸방에 사는 것이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장마로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야~ 저 집 좀 봐. 이 비에 곧 무너지겠다. 빌라 이름을 와르르 빌라로 고쳐야 하지 않니? 그렇지?”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응” 하고 우리 집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엄마에게 짜증내고 내 방도 없는 집, 좁아 터진 집, 더럽고 바퀴벌레 많은 집이라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속상해서 울 때 엄마가 저에게 “효정아, 엄마도 처음이니까 서투르고 힘들어서 우리 둘째 딸을 많이 의지했

어. 그러니까 우리 예쁜 딸이 엄마 좀 봐주면 안 될까?”라고 하셨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사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픈 아빠를 대신해서 일도 다니시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하시고 우리도 챙기려고 하시니... 어찌면 엄마도 아프고 힘든데 그저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강한 척 견디고 버티내는 것일 뿐 아프지 않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엄마 신장에 무리가 와서 입원하셨을 때 위 검사도 같이 했는데 위에 안 좋은 것이 생겨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암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묘해지면서 어찌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쫓겨나고 싶어서 엄마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엄마 건강 챙겨주지 못한 것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변하기 전에 꼭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저랑 같이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요. 아직 난 엄마께 잘

해드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늦은 나이에 엄마의 버킷리스트에 적힌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시고 잠을 줄여가며 시간을 쪼개어 새벽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29명 중 1등을 해서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셨죠. 정말 축하드려요!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시더니 100퍼센트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엄청 좋아하시던 우리 엄마. 엄마는 말로만 꿈을 이루며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니 진짜 자랑스러워요. 가난해도 꿈만큼은 가난하게 꾸지 말라던 엄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엄마는 저에게 슈퍼맨보다 더 멋져요. 사랑해요, 우리 엄마♡

이효정 ·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3학년 3반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우리 세원이 멋져부러!

부모님,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언제 편지를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부모님과 늘 가까이 지내다 보니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열세 살, 내년에 중학교를 가기 전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소감과 더불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는 지금 우리 가족이 하는 가게 ‘절레꽃’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빠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엄마가 가게 일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부모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를 돌봐 주시던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곱 살이었잖아요. 부모님께서 새벽까지 가게를 운영하셔야 했기 때문에 저를 환경이 좋은 남의 집에 맡기셨죠.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이 있어도 부모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 창피하기는 하지만 어느 날에는 잠자리에 들어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킨 적도 있었어요.

엄마,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고무 딱지를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을 때 가게 일로 바쁘신 엄마가 놀이터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함께 고무 딱지를 찾았잖아요. 다른 집 같으면 그깟 고무 딱지 때문에 떼쓰고 운다며 야단쳤을 텐데, 엄마는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제가 관심을 가지면 존중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고맙고 부끄러웠어요.

그 시절 제가 취미 생활로 바둑을 배워 대회에 나갔는데 우승을 했잖아요. 트로피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가게에 들어선 순간 아빠가 저를 번쩍 안더니 “우리 세원이 멋져부러!”라고 사투리까지 쓰며 함박웃음을 지으실 때 저도 제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고요.

그런데 우리 가게 절레꽃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공간이에요. “껌딱지 처럼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는 저를 보고 가게에 한 평 남짓한 공간의 공부방을 만드셨잖아요.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부모님께서도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신데 저는 그 와중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이것 먹고 싶

다, 저것 먹고 싶다' 하며 철없이 행동했죠. 그래서 아빠가 붕어빵 틀까지 사서 붕어빵을 직접 구워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어른이 되어도 그 맛을 기억할 거예요. 그 붕어빵은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특별한 붕어빵이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가게가 일찍 끝나면 가게 안에 텐트를 치고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잔 적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텐트 안의 우리 가족이 마치 고슴도치 가족이 된 것처럼 정다웠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깔깔대고 웃고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부모님,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가 되어 저를 위로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어떤 때는 의사, 어떤 때는 선생님, 어떤 때는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 남다른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 아픔을 '긍정'의 힘으로 치유한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어!" "걱

정 마."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다치면 다칠수록 굳은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며 더욱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크면 가게 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제가 존경하는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같은 사람이 되려고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으니 꼭 지켜봐주세요!

조세원 · 충북 원봉초등학교 6학년 1반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나의 위인에게 드리는 약속

이젠 볼 수조차 없는, 항상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간 아버지의 뒷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학교에 입학한 탓에 매일같이 아버지 출근길에 따라나서서 타던 오래된 트럭 안 냄새가, 아버지께서 일찍 일어나 차려 주시던 달걀 프라이가 다인 아침 밥상이,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맞이하며 일어나기 싫기만 했던 새벽 아침이 이젠 정말 그립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 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리움이 무뎠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항상 의지해온 철 없던 중학생이 낯선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고등학생이 되기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좀 쉬면서 하라며 아버지가 직접 서툰 솜씨로 깎아 주시던 사과를 이제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사 먹는 컵라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에 편의점 컵라면은 역부족이었어요. 사과가 없는 저는 자주

마음이 병들곤 했지만 푸석푸석한 사과 속에 스며들었던 아버지의 정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식구 넷이 모여 과일을 먹으며 하루를 화목한 분위기에서 마감했던 저녁 식탁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도 떠오릅니다. “너희는 커서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꼭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 이 말은 항상 제게 가장 큰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1년에 쉬는 날은 설날과 추석 단 이틀. 태풍이 휘몰아치는 날에도,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날에도, 그리고 아무도 출근하려고 하지 않는 날마저도 아침 7시 생골 시장 가운데 위치한 신발가게의 문을 열고 그 앞 카운터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그런 외로움이 있었기에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굳건함을 보며 자라왔고 아버지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꿈꾸는 삶은 아버지를 본받는 삶입니다. 또한 제 삶의 모토

인 '현재에 충실한 삶'은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얻은 제 소중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 제가 살아 숨 쉽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위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제 그런 슬픈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수천 번, 수만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밥맛이 없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딸이 괜한 걱정을 할 거라며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심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줄도 모르고 연락 한 통도 먼저 드리지 않았단 죄책감에 괴로웠지만 다시 한 번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잠시 비우시더라도 병원에 갈 여유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될 만큼 곧게 성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하나뿐인 나의 선생님, 아버

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세상 사회의 모든 일원에게 환원할 줄 아는 멋진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은소 · 전북 서영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듯
저희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 가며 살아갈게요.

난 엄마 딸 할래!

전남 홍농서초등학교 6학년 1반 최세희

선생님은 훌륭한 조연자

서울 삼선중학교 1학년 6반 박재우

멋진 동네 제빵사, 우리 아버지

부산 관광고등학교 1학년 7반 박서영

나를 살려주신 할머니께

대구 성광고등학교 2학년 4반 임재범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인천 북인천중학교 1학년 3반 최영인

난 엄마 딸 할래!

사랑하는 우리 엄마, 멀리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와 고생하는 우리 엄마. 내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다 사주고, '우리 딸~' 하며 맨날 예뻐해주고, 내가 아플 때 밤새 잠 못 자가며 병간호도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언제나 다음 날 웃으며 맛있게 해 주었지.

그에 비해 나는 엄마가 아프다고 어깨 좀 주물러달라고 할 때 건성으로 하고, 엄마를 위해 음식을 한두 번밖에 만들어 주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가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도와주지 않았어. 사실 나는 엄마와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뭘 알려달라고 할 때마다 짜증나고 귀찮아서 심술만 부리고 잘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도 미안해. 다음에는 엄마의 그런 말을 잘 들어줄게.

한 번씩 엄마가 하는 잔소리 '그러니까 운동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양치해라, 휴대전화 조금만 봐라' 같은 말이 때로는 정말 싫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생각해보니까 모두 다 날 위해 한 말이었어.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나중에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라고 식당에서

몸 아파가며 힘들게 일해 번 돈을 엄마를 위한 일보다 내 학원비로 가장 많이 써주었어. 나중에 내가 꿈을 이루게 된다면 엄마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응원해준 만큼 나도 더 노력하고 성공해서 보답할게.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 '최세희'라는 이름으로 건강하게 낳아주고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게 해줘서, 흥농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수학여행으로 경주·제주도·서울도 많이 가보고, 미국에도 갔다는 게 정말 꿈인 것 같고 행운인 것 같아.

또 나는 내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참 좋아.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와 비슷한 문화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베트남으로 쉽게 여행도 가고, 베트남 친구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언어도 배우는 게 참 멋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엄마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기죽지 말고 살았으면 좋

졌어. 그리고 나는 엄마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랑 가족들이랑 온천, 얼음성, 바다 등으로 여행도 가고, 김밥 싸서 소풍도 가고, 찜질방 가서 구운 달걀로 서로의 머리를 쳐서 껌데기를 깨뜨려 까먹고, 가족들을 위해 음식도 같이 만들어보고 싶어.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놀이공원 가서 솜사탕도 같이 먹고 싶어.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가 이 대한민국에서 더 편히 살 수 있도록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물론 지금도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엄마, 사랑해.

최세희 · 전남 흥농서초등학교 6학년 1반 · 이 글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작입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조연자

권소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재우예요. 저는 지금 선생님께 편지로 감사를 표하려 합니다. 선생님! 항상 저희를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적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셨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시력이 매우 나빠서 공부할 때 꼭 무거운 확대기를 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동수업에 항상 확대기를 넣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이동수업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는 도우미인 '재우도우미', 줄여서 '재도'를 생각해내신 뒤로는 힘들지 않게 됐어요. 그 밖에도 제 시력을 고려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도덕 담당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도덕에 대해서는 천부적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도덕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비롯해 많은 도덕적 삶이나 자기 성찰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등을 배웠어요. 또 어떤 일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훌륭한 조연자이십니다. 상담도 잘하시고요. 학기 초에 저와 상담하셨을 때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선생님께서 외발자전거를 계속 타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죠.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외발자전거를 못 타게 돼서 낙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 번 조사해본 결과 마침내 외발자전거를 계속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배우는 중이고 멋진 외발자전거도 하나 구입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P.S.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듯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살아갈게요.

박재우 · 서울 삼선중학교 1학년 6반 · 이 글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멋진 동네 제빵사,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다른 아이들보다 약하게 태어나 한 살 때 심장 수술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대만 쳐도 죽을 것 같았던 아이, 아버지의 아픈 두 번째 손가락 사랑스러운 딸 서영이에요.

몸이 약한 저 때문에 집에 정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 약수를 떠오면서 아빠 등에 업혀 산을 내려오곤 했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산을 오르내리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품이 너무 포근해서 안기고 싶어 투정을 부렸던 거예요. 이런 힘들었던 기억마저도 이젠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 아버지는 빵집 일로, 저는 학업으로 바쁘다 보니 요즘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었죠? 아버지 힘내실 수 있도록 모처럼 쓰는 편지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래서 더 행복했던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마트에서 빵 가게를 하셨죠. 그런데 저는 밀가루를 먹지 못하는 체질이라 빵집 딸임에도 빵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빵 가게와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 냄새만은 좋았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마트 입구에 들어서면 항상 열심히 빵을 만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돌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다른 부모님들이 학교에 콜팝이나 햄버거를 돌렸는데 그걸 보고 제가 부럽다고 이야기하니깐 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귀여운 곰돌이 모양 쿠키와 초코 쿠키가 담긴 예쁜 선물 상자를 학교로 보내주셨죠. 그때 보내주신 쿠키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도 정말 좋아했는데 맛있다고 감탄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만든 거라고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첫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기억나세요? 동네 구석까지 딱하니 들어와 그것도 우리 가게 바로 앞에 유명 체인점 빵 가게가 문을 열었죠. 분명 아버지의 빵은 여전히 맛있었고 단골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와줬는데도 거대 자본의 횡포에 가까운 연이은 할인 행사로 경쟁에서 밀려 폐점을 해야 했잖아요. 그때 정말 분했어요. 아버지의 실직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를 정말 절망하게 한 건 더 이상 아버지가 만든 빵을 먹지 못하

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다시 가게를 개업하게 된 게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난 뒤였어요. 하룻길에 잠시 들러 간식으로 따끈따끈한 빵을 맛있게 먹곤 했지요.

갑작스럽지만 편지 글을 빌려 아버지께 그간 말 못 했던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칠 즈음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빵이랑 우유를 들고 학교에 갔잖아요. 사실 그때 그랬던 건 급식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과 작은 다툼이 있어서였어요. 친했던 친구들과 다툼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혼자 급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혼자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당시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숨이 턱턱 막혔죠. 제가 왜 급식을 먹지 않고 빵을 먹는지 궁금해 하셨죠? 망설이며 대답하지 못하는 저에게 답을 재촉하지 않고 “오늘은 이거 먹어라. 이게 맛있게 나왔다”라고 건네셨던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걸 참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셨던 아버지. 제가 제과제빵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부산 관광고등학교 한식조리과에 진학한 뒤로는 제 스

승이 되어주셨죠.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제과제빵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직업은 고생스럽고 어렵다. 내가 하는 게 쉬워 보이냐? 아니다”라고요. 아버지 제가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건 일이 편해 보였거나 큰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으로 행복을 선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 조리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만든 빵을 먹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빵 만드는 실력이 부족하고 미숙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길 끝까지 봐주실 거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지,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서영 · 부산 관광고등학교 1학년 7반 · 이 글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할머니께

할머니, 올해 두 번째 편지네요. 제가 새엄마한테 매일 맞고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어 매일 울고 아빠는 항상 새엄마 편을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몰래 찾아와 침울하고 자살까지 하고 싶었던 저에게 사랑이란 걸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1년을 몰래 만나다가 제가 더 이상은 못 견뎌서 할머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할머니가 저를 사흘 뒤에 데려와서 키우신 이후로 무려 7년이 지났네요.

할머니, 처음에 왔을 때는 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어릴 때 함께 많이 울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같아 죄송하네요. 물론 서로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토닥여주셔서 감사해요. 또 할머니의 아들인 아빠와 연을 끊으면서까지 손자인 저를 아들처럼 여기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저와 다투고 나면 할머니가 우울해지셔서 “너를 데려온 게 잘한 선택일까?”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 할머니의 사랑 넘치는 그 마음이 저라는 한 사

람을 어둠으로부터 꺼내서 밝게 자라게 해주셨고, 결국 처음에는 다투어도 지금은 아빠랑 통화하고 살고 있으니깐요.

사실 아빠는 아직도 미워요. 그때는 제 말을 하나도 안 믿고 지금도 가끔 통화해보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새엄마랑은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빠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 알고 무엇보다 할머니만은 아빠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서 저도 앞으로는 덜 미워해보려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 할머니, 저 그리고 아빠랑 다 같이 여행 한번 길게 다녀오면 좋겠어요.

할머니,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도 엄청 떨어지고 예전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를 학원 보내기 힘든 형편인 거 알면서도 가끔 학원 보내달라고 한 것도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학원 안 다녀도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할머니랑 얼싸안을 생각하며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병원 좀 가세요. 옛날에는 그냥 아

프신 거였지만 요즘엔 두통도 심하고 쥐도 자주 나고 온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파하시고 화도 예전보다 잘 내시잖아요. 아무리 돈이 아깝고 저를 잘 키우고 싶으셔도 저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어서 커서 할머니랑 여행도 가고 제가 감사한 거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러니 병원 좀 가세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겠네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임재범 · 대구 성광고등학교 2학년 4반 · 이 글은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종환 선생님! 말 많은 제자 최영인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늘 산으로 밭으로 놀러 다녔던 제가 걱정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1반이 된 첫날, 선생님은 각자 이름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다 배우고 간 것이 아니었던 저는 제 이름을 ‘초영인’이라고 쓰고 말았어요. 잘생기셨지만 무섭게도 생기신 선생님이 “너 이름이 초영인이야?”라고 물으셨을 때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글을 쉽게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책을 읽고 한 줄 독서록을 쓰게 하고 독서활동도 꾸준히 지도해주신 덕분에 짧은 그림 동화 한 권을 읽는 데 30분이 걸렸던 제가 동화책도 가뿐히 읽고 점점 100쪽, 200쪽이 넘는 두꺼운 책들까지도 읽게 되었어요. 나중엔 독서록도 200장 넘게 썼죠.

또 한글보다도 훨씬 심각했던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나 다른 과

목들은 책을 읽게 되니 자연스럽게 글을 알게 되어 어렵지 않았지만 수학은 달랐어요. 전 1부터 10까지도 제대로 셀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손으로 하나하나 세는 법을 가르쳐주시면서 ‘괜찮다, 잘한다’라고 항상 격려해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몰라도 딱히 고민하지 않고, 제가 잘 모른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감 있게 공부에 다가간 것 같아요.

3월 초 상담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한 저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에게 ‘괜찮다고, 영인이는 잘하고 있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가르치기 더 좋다’고 위로해주시고, 수업할 때도 ‘영인이가 이해한 것 같으면 다른 아이들도 이해했겠구나’하고 항상 저를 기다려주신 것이었다는 걸 6년이 지난 지금 엄마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를 이제야 깨닫게 되어 죄송하고 그만큼 더 감사해요.

또 선생님은 저희에게 매일 노래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개똥벌레’,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많은 노래들 그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래동요만 알던 제가 그 많은 노래를 알게 되다니, 저로서는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에서는 항상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떤 만화에서 이런 구절을 봤어요. “난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토끼 굴에 들어가는 엘리스 같은 기분이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내내 학교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늘도 신비롭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되어 빨리 아침이 되고 학교에 가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기분. 그리고 그런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고, 제가 부족한 만큼 노력하게 되고 결국 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셨어요.

모든 것은 항상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 선생님이 제가 목

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켜봐주시지 않았다면 제 취미가 독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줄넘기도 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공부도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했겠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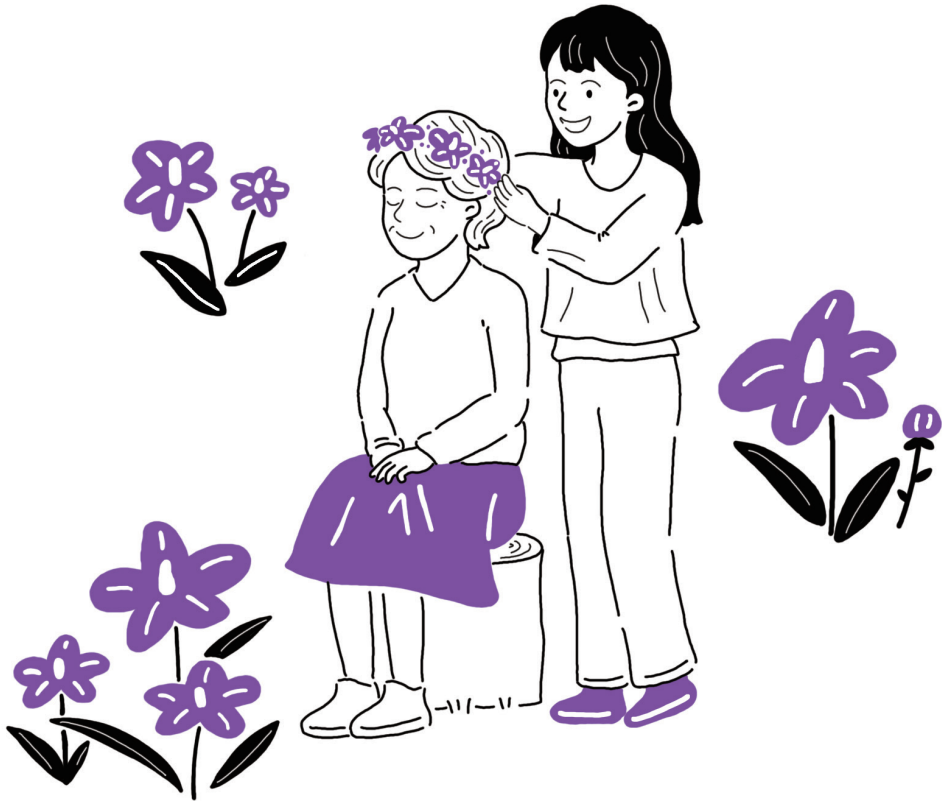
제가 1학년 1반이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고 인생이 바뀐 계기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행운이 온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선생님께 감사한 것이라면 100가지, 200가지… 아니, 무한대로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는걸요. 제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오직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무한대의 제 마음을 담아 다섯 글자로 표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인 · 인천 북인천중학교 1학년 3반 · 이 글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나는 할머니의 보약, 할머니는 나의 보물!

나는 할머니가 참 좋아요.

사랑해요, 할머니!



저의 영원한 멘토,
박지영 선생님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2학년 1반 임민영

사랑하는 할머니

대전 계산초등학교 2학년 3반 박사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

울산 무거고등학교 2학년 4반 홍수민

해 질 녘 아름다운 풍경
같은 우리 할머니

세종 국제고등학교 1학년 3반 김현서

진짜 용기를 가르쳐주신
전성태 선생님께

경기 철산초등학교 5학년 6반 신정원

저의 영원한 멘토, 박지영 선생님

선생님,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박지영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감사랑 18기 제자, 임민영입니다. 제가 요즘 선생님께 자주 안부 인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잘 지내셨어요’라는 말 하나 적지 않는다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제 8년의 학교생활 중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활기차게 인사해 주시고 항상 재미난 이야기를 수업 때마다 들려주셨지요. 가끔 그 즐거웠던 6학년 때가 그리워져요.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예요. 대부분의 선생님은 저를 가엽게 여기고 특혜를 주곤 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스스로 잘 성장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6학년 때 선생님과 좋았던 추억이 많아요. 특히 졸업식 때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라는 부담감과 떨림보다 선생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경을 쓰고 눈매가 날카로워서 선생님이 엄하고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은 정말 선하

셨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누어주셨어요. 마치 따스하고 다정한 엄마처럼요. 점차 6학년 생활에 익숙해질 때 한과 만들기 체험을 갔죠. 사실 그곳은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간 곳이라 그다지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과 만들기 체험이 끝난 뒤 한과 몇 조각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인생 최대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무척이나 좋아하셨지요. 지금도 그때가 생생히 생각나요.

그 다음 추억은 제 초등학생 역사상 최악의 운동회예요. 왜 최악이었느냐고요? 제가 맨 처음 개인 달리기를 할 때 전력 질주해 3위를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지고 토할 것 같아 결국 보건실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꼼짝없이 몇 시간을 누워 있어야 했죠. 아침에 먹은 김치볶음밥이 원수였어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도 못 하고 겨우 2종목밖에 못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점심 시간에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1학기가 전성기였다면 2학기는 암흑기였어요. 그건 바로 문제의 학예

회 때문이었죠. 저는 업다운 펑크, 뱅뱅 비행을 추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저 몸치, 음치, 박치 그러니까 삼치인 거 아시죠? 그 안무 하나 외우느라 수백 번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성공적으로 학예회를 마치고 선생님은 저희에게 고생했다며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식. 선생님도, 저도 정말 슬펐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려 하네요. 그렇게 졸업식을 끝으로 6학년의 생활이 막을 내렸어요.

선생님은 제 우상이었어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주셨지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어요. 최고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네요. 지금 가르치고 계신 2학년 4반도 그 추억과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 진심 아시죠? 제가 언제나 선생님을 기억하고 존경한다는 것어요. 전 선생님의 사랑에 경의를 표해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큰 사랑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계세요. 나이가 들고

제가 어엿한 성인이 돼서도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입 아프게 말하자면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영원한 멘토예요. 선생님은 또 겸손하게 “내가 그 정도라니 정말 고맙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중학교에서 지루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의 재미있었던 수업이 떠올라요. 그만큼 제가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겠죠.

선생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종종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린 제자를 정성껏 가르쳐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자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선생님도 대견하시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제자가 될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저희 6학년 1반 아이들한테 종종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으로 끝낼게요. “우주 최강 6학년 1반, 영원하라!”

임민영 ·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2학년 1반 · 이 글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어제 할머니를 만나고 저는 많이 슬펐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엉엉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할머니 아프신데 더 있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와야 해서 오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이고, 우리 보약 왔어?”

“할머니는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우리 손주만 보면 안 아프니까 할미 보약이지!”

나는 할머니의 보약이지만 할머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나랑 엄마를 돌봐주고, 엄마가 일해서 내가 혼자 있어야 할 때도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도 팔고 울산에서 대전까지 이사를 오셨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전학을 가보니까 친구도 없고 새로운 곳이라 너무 이상했는데 할머니는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저를 위해 이사 오셔서 매일 돌봐주셨어요. 엄마가 없어서 울면 할머니가 업어주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지하철 타고 엄마 보러 같이 가고!

글자 책, 숫자 책도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쳐주신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에 안 가고 학원에 안 다녀도 글자도 다 알고, 숫자도 다 세고, 덧셈과 뺄셈도 다 배웠으니까 할머니는 나의 선생님이예요. 할머니는 내가 잘 못하거나 틀려도 화내지 않고 계속 설명해주니까 난 할머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아파서 수술도 하시고 이제는 못 움직이시니까 너무 슬퍼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갑자기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어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시던 날, 나는 구급차 아저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삐뽀삐뽀’ 하며 병원에 가서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시는 외할아버지한테 우리 할머니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퇴원해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너무 기뻐요. “외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에 크게 말했어요.

어제도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외할아버지께 할머니 안 아프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할머니가 참 좋아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실 때도 내 장난감 사다 주시고, 멀리 서울의 큰 병원 다녀오실 때도 예쁜 옷 사다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실 때마다 손으로 바느질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옷도 만들어 주시니까 나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나에겐 할머니가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엄마한테 혼나면 나를 위로해주시고 수학 문제 많이 틀려도 괜찮다고 하니까, 할머니를 만나면 행복이랑 웃음이 생기니까 할머니는 나의 보물이에요. 내가 아플 때 밤새 업어주고 열이 펄펄 나면 물수건도 해주시면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할머니도 힘내세요. 할머니의 보약인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테니까 할머니도 나의 보물 상자로 저와 함께 용기를 내주세요.

나는 할머니의 보약, 할머니는 나의 보물! 할머니 제 마음 다 아셨지요?
나는 할머니가 참 좋아요. 사랑해요, 할머니!

박사윤 · 대전 계산초등학교 2학년 3반 · 이 글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 만드는 우리 아빠. 난 항상 울지 않고 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해왔는데 밤에 자고 있는 아빠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해. '아빠도 참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미안해지고 먹먹해지거든. 혹시나 아빠가 어떤 이유로든 날 떠날까 봐 무섭기도 해. 아빠가 없는 세상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거든. 그도 그럴 게 언제나 내 세상 속에는 아빠가 있었고, 나는 언제나 아빠의 세상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으니까.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항상 몸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뼈가 부러져도 나와 오빠를 위해 헌신하는 아빠가 있었기에 내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더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난 아빠를 잃는 게 너무 두려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쳐와도 날 지켜주는 기사님 같은 아빠. 생각해 보면 아빠는 참 여러 번 내 세상을 구해줬어. 다섯 살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날 태우고 가던 앰블런스를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온몸으

로 날 감싸 안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나보다 더 심하게 다치기도 했고, 별별 이유로 고모들한테 혼나는 날 감싸주다가 대신 혼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는 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픈 마음에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입원도 몇 번이나 해봤고.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내 세상을 구해줄수록 아빠의 세상은 망가져간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철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 아빠는 나를 위해 자신의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난 미련하게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는걸.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아빠는 나한테 항상 그랬어. 아빠 힘닿는 데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고, 아빠가 몸 다 버려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니 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래서 싫어. 이왕 지원해주는 거 더 팍팍 밀어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깔아줬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아빠의 인생을 내 편이 보다는 아빠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도 아빠는 내 말 안 듣고 힘들게 일하러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꼭 약속할게. 내게 쏟아 붓는 아빠의 인생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 돼서 내가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딸이라고 세상에 알릴게. 내게 쏟은 아빠의 인생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약속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약속할게.

아빠, 아빠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나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겠느냐고. 나도 그래. 아빠가 내 아빠 아니었으면 난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싶어. 정말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다행이야.

아빠, 만약 내가 더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생각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도 난 아빠의 마냥 철없고 손도 많이 가는 공주로 지낼 수 있을까? 굳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나랑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라도 건강 좀 챙겨. 나도 아빠 속 안 썩이도록 더 노력할게. 이젠 나도 아빠를 위해 내 인생을 쓰고 싶거든. 아빠, 이젠 힘들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딱 우리를 위해서만

살자. 내가 지금부터라도 바뀔게. 아빠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항상 내게 넘치는 사랑을 쏟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이젠 내가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해.

눈물 나게 고맙고 미안한 아빠. 내가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 이제부터라도 많이 웃자. 우리 너무 웃을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 이젠 웃을 여유도 생겼으니 나랑 같이 많이 웃자. 그리고 우리 행복하기만 하자. 알겠지? 아빠,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홍수민 · 울산 무거고등학교 2학년 4반 · 이 글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해 질 녘 아름다운 풍경 같은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하고 가만히 불러보면 허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이맘때쯤 목청껏 울어대는 매미 소리와 초록으로 물든 들녘도 떠오릅니다. 이름도 예쁜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그곳에는 언제라도 달려가면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지요. 저의 어린 날 추억이 머물고 있는 외갓집, 할머니께 가는 날이면 언제나 설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늘어선 가로수 길을 따라 푸른 섬진강을 지나면 낮익은 지리산이 먼저 반겨주었지요. 차가 마을에 들어서면 먼저 알고 바쁘게 뛰어나오시던 우리 할머니. 와락 달려가 안기면 할머니의 가슴에서는 낙엽이 타는 것 같은 그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운 할머니,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이면 시원한 강바람을 따라 섬진강으로 다슬기를 잡으러 갔어요. 저와 동생에게는 한사코 얇은 물가에서 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할머니와 엄마는 옷이 다 젖은 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반짝반짝 윤기 나는 갈색 다슬기를 잡으셨지요. 그런 저녁이면 된장을 풀어 다슬기국

을 끓여 주셨어요. 바늘로 찔러 살살 돌려가며 꺼내 먹던 초록빛 다슬기살의 구수한 맛이 지금도 군침을 돌게 하네요. 밤에는 텃밭에서 금방 따온 맛있는 옥수수도 삶아 주셨지요. 할아버지께서 피워주신 알싸한 모깃불 냄새를 맡으며 평상에 누워 바라보던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바쁜 농사철인데도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일손을 멈추시고 우리를 경운기에 태워주셨어요. 탈탈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덜컹덜컹 흔들리며 시골길을 달릴 때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목청이 터질세라 노래 부르는 저희를 보며 몰래 웃으시던 할아버지도 그립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지냈던 저는 그 행복이 아픈 그리움이 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 전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던 추운 겨울날,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할

머니께서 1년 동안 저희 집에 머무시며 저를 키워주셨지요. 할아버지 혼자 농사를 지으며 고생하시게 했던 것을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시면서도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고 일일이 봉투에다가 이름까지 써서 챙겨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무뚝뚝하진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의 깊은 속정을 새삼 느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는 애써 슬픔을 감추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큰 슬픔으로 힘들어하셨다는 걸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도 펴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시며 삼 남매를 훌륭하게 공부시킨 할머니께서 그 부지런한 일손을 놔버리고 의욕을 잃은 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셔서 어머니는 무척 애를 태우셨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읍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다니시며 한 걸 밝아진 모습을 보였을 때 다행이다 싶어 불안한 마음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저는 홀로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제가 할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할머니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 왔으면서도 그동안 저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네요. 죄송해요, 할머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늘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 이 편지에 씁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곧 방학을 하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뵈러 갈게요. 헛간에서 주인을 잃고 녹슬어가는 경운기에도 잠시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섬진강에서 다슬기를 잡고 돌아오는 해 질 녘의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김현서 · 세종 국제고등학교 1학년 3반 · 이 글은 세종특별시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진짜 용기를 가르쳐주신 전성태 선생님께

5학년 새 학기가 되면서 어떤 분이 담임선생님이실까 무척 기대하고 설레었어요. 그런데 전성태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드문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 되셔서 우리 정원이 체육도 많이 하고 씩씩해지겠는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자 선생님=와일드한 분=체육 시간=꼼꼼하지 못한 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체육은 진짜 많이 할 것 같아 올 한 해는 신나게 노는 1년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은 깨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남자분이시지만 많이 부드러우셨어요. 물론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시며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셨지만요. 또 무조건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놀이로 체육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셨고, 운동 신경이 부족한 저와 친구들을 격려해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많이 연구하고 수업하시는

느낌이 들고, 저희가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죠. 선생님께서는 제게 남자는 이렇다는 성 고정관념을 깨뜨려주신 분이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을 만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참 고마운 점이 많아요. 그중 가장 고맙고 제게 큰 가르침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얼마 전 ‘과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에서 제가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가 심사 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인데도 그 아이가 친구들 투표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사실 선생님께 말씀드리러 가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쩌나, 버릇없다고 혼내면 어쩌나, 어린아이 말이라고 무시하시면 어쩌나 하고요.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 말을 경청해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며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친구들 앞에서도 사과해주셨고요.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선생님께 깊이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어른이, 특히 선생님이 아이의 의견을 듣고 당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최우수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했던 것보다는 과정이 옳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났는데, 선생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과해주신 것에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또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로 참 고맙습니다. 제가 과학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점, 또 제가 해양연구원이 꿈인 것을 알고 관련한 자료도 주시려고 하신 점 등등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두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성태 선생님이 가장 좋아요. 선생님께 배운 가르침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또 선생님처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신정원 · 경기 철산초등학교 5학년 6반 · 이 글은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응원한 것처럼
제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했어요.”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위로받았습니다.



가벼운 어른이 된다는 것

강원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김준영

인생의 멘토 선생님께

충북 충주성남초등학교 6학년 1반 임시현

내 기억 속의 외할아버지께

충남 탕정초등학교 3학년 6반 양지유

평생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전북 고창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유희진

제 꿈에 당신의 꿈이 녹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전해미

가벼운 어른이 된다는 것

안녕하세요, 여전히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네요. 어떤 순간은 그 순간에 머물면서도 보고 싶고 그립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저는 지금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런 저에게 드디어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가벼운 어른이 되는 것.’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때 기억하시죠? 최악의 하루가 될 뻔했던 최고의 하루.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 언제나 그렇듯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가던 길을 되돌아서 저한테 오시는 모습 보고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울었는지 아직도 콧등이 시큰해요. 무슨 일이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당연히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선생님 답에 멍해지더라고요. “그럼 너는 누구한테 말해? 엄마한테는 얘기해?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네 엄마 할게. 나 지금 네 선생님 아니야. 나 지금 네 엄마야. 그러니까 나한테 털어놔줘. 그냥 그것만 해.” 맞아요. 사실 이 말을 듣고 더 울었어요. 겁이 났어요. 정말 오래

도록 망설였어요.

어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거라, 어른들의 피부에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어른의 일이란 너무도 무겁고 버거우니까. 그 뒤로 선생님과, 아니 그때의 나의 엄마와 나눴던 모든 이야기를, 공기를, 눈빛을 다 기억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지기는커녕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두려웠어요. 그냥 학교가 힘겹고, 사람이 지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공기에 숨이 턱턱 막혀서 속이 울렁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저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온 마음을 다해 나눠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젠 알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온기’. “너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너의 얘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사랑할 내가 여기 있어.” 감정을 공유하고 슬픔을 나누는 법을 알려주고자 하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글 1호 팬도 나온 거고요. 학급일기를 쓸 때 지금 와서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열심히 썼어요. ‘덕분에 이만큼 자랐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강한 아이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후 옆에 ‘놀랄 정도로 소신 있는, 주관이 뚜렷한, 또 반면에 감성 넘치는 마음 표현이 굉장한 힘을 지녔다’라는 선생님의 답글이 너무 좋아서, 두고두고 힘이 될 것 같아서 학급일기를 복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종이가 너털너털해질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숨 막히는 불안과 억압에 도망치고 싶었던 나지만 학교라는 곳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그 자체로 올곧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눈물 많은 어른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세상의 어른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슬픔이나 고단함 같은 어두운 감정은 더 더욱.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 나도 어른이 되고 싶지 않

다고. 나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어른이세요. 조그마한 스침에도 많이 울고, 또 많이 웃고,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어른.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어른. 그런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어른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하며 어른이 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픈 바람이 생겼어요. 무거운 말들과 눈초리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라 훌륭한 어른이 많아졌으면 하는 멋진 첫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우울할 때나 즐거울 때, 속상할 때나 벽찰 때, 그리고 울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알려고 끊임없이 다가와 주셨던 나의 산타. 근사한 꿈을 심어주신 나의 어른. 우는 나에게 아이스티라는 따뜻한 선물을 주신 내 글 1호 팬 나의 선생님께 내 사랑을 전합니다.

김준영 · 강원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 이 글은 강원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인생의 멘토 선생님께

가장 좋은 선생님, 송 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을 1년 전 만났던 그때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는 늘 할머니 담임선생님만 만났는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라니! 비록 5학년 시작하고 두 달이 지난 뒤였지만. 선생님께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로 오신 5월 18일, 선생님은 저희에게 높은 톤의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반에 이름이 생겼어요. 5학년 1반, 바로 oil 반이에요.

선생님은 예상대로 정말 좋았어요.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쳐주시고, 가끔 저희가 심심해할 때면 아재 개그와 퀴즈도 내주셨지요. 수학 문제의 답이 5, 6, 7, 8이라면 5는 사, 6은 랑, 7은 해, 8은 요면 ‘사랑해요’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차는?’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답을 ‘아프리카’로 적어 선생님께 가지고 가면 사탕을 주셨어요.

제가 기다리던 수련회를 한 달 앞둔 때였어요. 수련회에서는 장기자랑

을 해야 했어요. 저는 수련회 장기자랑 때 랩을 맡았죠. 그리고 여자애들은 트와이스의 안무를 맡았고요. 드디어 수련회 날이 왔어요. 열심히 연습한 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날 밤 장기자랑을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반과는 다른 특별한 빛이 나는 풍선을 사 오셔서 우리 반 장기자랑을 훨씬 빛나고 밝게 만들어주셨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고 촛불의식 때 친구들 모두에게 촛불을 붙여주시며 “생명체가 아닌 양초도 제 한 몸 뜨거운 고통을 참고 자기 힘을 다해 점점 녹아가며 우리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해주는 친구, 자신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못 다한 얘기가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해보고 이야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련회 마지막 밤까지 선생님은 항상 우리의 텐트 곁을 돌아다니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지요.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방학을 지나 우리가 2학기 처음으로 교실에 왔을 때도 선생님은 첫 만남처럼 “안녕~”

하고 반겨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2학기에 한 명이 전학을 왔죠. 솔직히 그 친구와 2학기 동안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면 선생님은 누구보다 공정하게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혼내며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그 친구가 잘못했으면 그 친구를 또 혼내주셨어요. 2학기 때 선생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싶어 하셔서 저희와 일대일 상담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저와 상담하실 때 이제야 돌이켜보면 잘난 척만 하고 소극적이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제게 지금도 잘하고 있다면서 용기를 주셨고 친구들과 관계 형성, 무엇보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학예회 일정이 발표되었어요. 우리가 무대에서 할 곡은 사이의 '대디'였어요. 이 '대디'라는 곡은 바로 선생님이 정하신 곡이잖아요. 우리에게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곡을 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oil 반은 학예회 대상을 받기까지 했어요.

1년 전 촛불의식 때 선생님께 하지 못한 말을 지금 하려 합니다. 선생님은 열세 살 제 인생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제게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주셨습니다.

송 쌤이 5학년 때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그 웃음 덕분에 6학년인 지금도 많이 웃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5학년 때 선생님과 보낸 시간 덕분에 저는 생각이 한 뼘, 두 뼘 넘게 많이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여 많은 꿈을 꾸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뵈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임시현 · 충북 충주성남초등학교 6학년 1반 · 이 글은 충청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내 기억 속의 외할아버지께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내 기억 속에 있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손녀딸 지유예요. 아홉 살이 되고 나서부터 할아버지를 못 보게 돼서 뺨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고 싶을 때마다 푸른 하늘을 보며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할아버지,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여기는 정말 해가 이글이글 불타오르며 더워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며 비가 쏟아져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나 봐요.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효유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지유 꿈에 나와주세요. 저번에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는 꿈을 꿔요.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요, 최고로 사랑하셨던 할머니도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하시며 저희를 꼭 안아주세요. 또 하루는 효유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깐요. 할아버지는 지유, 효유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할아버지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을까 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잊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셨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상 탔어요, 회장 됐어요” 했는데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기뻐하셨을 텐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늘이 맑을 때는 할아버지가 웃는 것 같고 바람이 불 때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한자 검정시험에 합격했어요. 또 100점이에요. 다음에 난정장학생에 도전해볼게요. 할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할아버지는 페스탈로치처럼 사랑을 가르쳐주셨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삼겹살 파티 한 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아픈 걸 알았다면 옆에서 간호해주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렸을 텐데. 조금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힘낼게요.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양지유 · 충남 탕정초등학교 3학년 6반 · 이 글은 충청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평생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엄마, 안녕! 엄마의 하나뿐인 딸 희진이야. 엄마 혹시 기억나? 어릴 때 내가 가지고 다녔던 엄마가 사준 곰 인형 말이야. 난 그 곰 인형을 좋아했어. 그 곰 인형은 혼자 잠들기 무서워하는 나에게 아주 큰 용기를 줬어. 그래서 항상 곰 인형을 들고 다녔어. 나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던 곰 인형의 하얀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검은색이 되었고 원래 털보다 하얀 구름 같은 솜이 빠져나와 결국 버려졌지.

난 어린 마음에 깨달았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언젠간 나를 불행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아마 그때부터일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이. 하지만 난 이제 이 다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왜인지는 엄마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엄마는 지금 큰 병과 싸우고 있잖아. 엄마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난 이런 엄마가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지만 가끔은 ‘내일 당장 엄마를 잃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제 엄마 나이는 40

대이고 나는 아직 번듯한 직장도 없고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벌써 내 곁을 떠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엄마의 병이 무엇인지 알게 된 날 저녁, 엄마는 나한테 “우리 딸 엄마랑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물어봤어. 난 사실 엄마가 대학병원에 갔다 온 뒤 무슨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때부터 눈물이 났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던 기억이 나. 엄마가 물어봤을 때 지금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엄마 앞에선 울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나를 보며 엄마는 “엄마 바로 내일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울면 어떡해?” 하며 말을 이어갔어. 엄마는 내게 “엄마가 아직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언제 희진이를 못 볼지 모르니 희진이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배우고 살림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 이렇게 갑자기 바뀐 삶을 살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 엄마가 전에 나랑 다투고 나서 한 말이 있어. “엄마가 언제고 없어질 수 있어서 미안해. 희진이는 나중에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어 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엄마! 내가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절대 말로는 못 하지만 엄마는 이 세상 어떤 엄마보다 가장 예쁘고 자랑스럽고 좋은 엄마야. 엄마가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오래오래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항상 좋은 거 먹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줘. 나 취직하는 것도 보고,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남자친구도 생기면 엄마한테 첫 번째로 보여줄게. 그리고 나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아기 잘 키우는지 감시도 해줘야 해! 우리 엄마 살면서 해야 할 게 많으시네. 꼭 내가 쓴 거 이루고 가야 해.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번 생에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 서로 투닥거리며 싸워도 사실 우리 가족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

잖아. 많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돈보다 소중한 행복과 사랑으로 채워나가자. 엄마, 선생님 포기하고 한국 와서 나 낳아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키워준 것도 고맙고, 나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살 맞대면서 같은 공간에서 밥 먹어주는 것도 고마워. 남들은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한테 지금 이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데. 우리 내년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자. 정말 내 엄마 해줘서 고맙고, 엄마 병 완치하고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나 셋이 꼭 놀러 가자.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곁에 오래 머물러줘.

유희진 · 전북 고창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 이 글은 전라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제 꿈에 당신의 꿈이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 말이 참 어색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단에서 만난 선생님께 건네던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은 말 안 듣는 우리 안 볼 수 있어서 좋아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눈이 움푹 들어가는 웃음이었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쓴 한약을 마신 뒤에 사탕을 먹는 기분처럼 말이에요.

1학년 때 처음 담임으로 선생님을 만났을 때 국어 선생님이셔서 엄청 좋아했던 게 기억에 뚜렷해요. 선생님도 제 꿈이 작가인 거 알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백일장 같은 거 무심히 알려주시면서 같이 나갔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나란히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는데 은근 기분 좋았던 거 있죠? 제가 선생님보다 큰 상을 받았던 것보다 제자와 스승이 함께 추억을 쌓은 거, 그게 참 묘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선생님, <마지막 잎새>라는 책 아세요? 제가 그 책의 나무로 살던 날이 있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한 잎 한 잎 잃어가는 시기. 누구나 겪는 바로 그 시기. 불안하더라고요. 글이란 게 좋아서 시작했

는데 그게 절 더 초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능 있어서 부럽다고, 헤미는 맨날 상 타 온다며 곁에서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사실 더 무서웠어요. 나는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상을 타고 싶었던 거도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걸 유일하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예요. 사실 선생님은 제가 상을 받아 와도 별 큰 반응 없었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조금 큰 상을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실에서 상을 받던 날 말이에요. 그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한 채 방송실로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헤미야? 네가 미영 선생님이 말한 글 잘 쓰는 개구나”라고요. 그날 제가 자랑스럽다는 걸 제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것이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 걸요. 그게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보다 더요. 부모님의 기대가 커서인지 저는 잘 해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했던 나무줄기라서 선생님께 알게 모르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선생님은 국어 수업을 하시다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나이 40 넘어서 겨우 가진 첫째이자 늦둥이 기웅이. 아들의 학교생활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저것 에피소드도 보따리 풀듯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지. 선생님과 제가 처음으로 함께 나간 그 백일장에서 수상집을 받았잖아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의 시에 있는 ‘가난한 싱글맘’이라는 구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선생님 이야기라는 걸 한눈에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늘 웃으면서 아들 얘기하는 선생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끝으로 학교에서의 김미영을 정리하셨잖아요. 저희는 선생님에게 마지막 제자로 남으면서 김미영의 마지막 학교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던 선생님 늘 그립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선생님을 위해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가져다드리지 못했다는 반장 말을 듣고 장난감을 못 산 아이처럼 슬퍼

하시던 모습. 그리곤 그날 보여주신 진심. 늘 무뚝뚝하시더니 제 손을 잡고 다음에 책 쓰면 꼭 나한테도 한 권 달라면서 웃으시던 그 모습 말이에요. 학기 초에 선생님이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책 써 온다고, 뭐 해 온다면서 큰소리쳤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거. 정말 제가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30년 남짓한 교직 생활 중에 아무도 실천하지 못한 그 말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금은 시청에 취직하셨다며 아이보다 순진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버젓이 김미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응원한 것처럼 제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했어요.”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위로받았습니다. 마지막 제자 헤미가, 오로지 선생님을 위해 펜을 듭니다.

전혜미 · 전남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 이 글은 전라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께,
당신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된 것은 제 삶의 큰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그렁그렁

경북 경산여자중학교 3학년 5반 김나영

정말 정말 사랑해요, 부모님!

경남 화정초등학교 3학년 6반 김민서

믿음 8기 제자가 사랑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 백혜진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부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엄마, 아빠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2학년 2반 이수민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2학년 7반 최민경

엄마 생각에 눈물이 그렁그렁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감기가 유행하는 요즘, 감기 조심하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딸, 나영이에요. 두 번이나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저를 돌봐주시고 옆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기에 이 편지로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헌신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보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서울까지 거의 4시간 동안이나 운전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연예인을 본다는 설렘에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모르고 혼자 조급해져서 감사하다는 말 하나 없이 빨리 운전해달라고 조르지만 했지요. 그리고 밤 9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고하셨다는 말 달랑 한마디만 하고서 친구들과 정신없이 채팅을 했어요.

왕복 8시간 동안 운전을 해주신 아버지께 안마도 해드리지 않고 방에 들어간 저에게 얼마나 슬픈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드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

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랑 말도 섞지 않고 방문을 잠그고 지낸다더라.”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듯해요. 돌이켜보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끼리 소풍도 가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탔는데 중학생이 되고 난 후로는 그런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에 어머니, 아버지가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셨을 때 저는 친구들과 채팅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성의 없게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 잠시나마 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어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제가 원망스럽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저를 존중해주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특히 어머니는 청소년교육과를 나와서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안다’며 제 고민이나 의견을 모두 존중해주시잖아요. 남들은 부모님이 연예인 좋아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연예인을 몰래 좋아한다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을 존중해주시고 오히려 연예인이 제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함께 응원도 해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

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아플 때마다 간호해주시는 어머니! 열로 고생하는 제 옆에서 물수건을 꼭 짜 얹어주느라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어머니!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때 “아픈 거 다 엄마한테 온나~” 하면서 꼭 안아주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엔 눈물이 그렇그렇 맺힙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킨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속상함 반, 깊은 모성애의 감동 받을 느끼면서요.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만큼 제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매일 어머니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된다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사실 제가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곤 해요. 저였다면 금세 화냈을 일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참으시고 타일러가며 해결하시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와, 역시 아무나 엄마를 하는 게 아냐’라고 느낀답니다.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바른길로 인도해주시는 어머니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부모님께 느꼈던 감사의 마음을 모두 나열하자니 편지가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글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어요. 평소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께 당신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된 것은 제 삶의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의 표정은 어떨까 하는 재미난 상상도 해보고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편지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은혜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저라는 아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것, 언젠가는 보답해드리기로 약속해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제게 첫 번째로 내려온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김나영 · 경북 경산여자중학교 3학년 5반 · 이 글은 경상북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정말 정말 사랑해요, 부모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선물과 맛있는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부모님이 있어 정말 행복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나와 동생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부모님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엄마는 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빌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엄마의 소원대로 4킬로그램이 넘는 튼튼한 아이로 태어난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다는 그때를 상상해봅니다.

저를 이 세상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키도 크고 몸무게가 67킬로그램이에요. 지금도 엄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며 조금만 먹고 다이어트 하라고 하시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의 사랑도 먹으며 더욱 튼튼하고 사랑스런 아이로 자라겠습니다. 이런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장사를 하시는 최고의 아빠.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새벽 2시라 나와 동생은 아빠를 아침에만 볼 수 있어요. 새벽에 들어오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학교에 매일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다 하고 큰 소리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엄마는 “아빠 깨신다, 그냥 가”라고 하시지만 아빠는 그때마다 일어나 “어! 잠깐만 기다려줘!” 하며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걸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빠는 항상 “지금 우리 애들 안 보면 하루 종일 보고 싶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며 “늦겠다. 빨리 가자” 하실 때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랑 함께하는 등굣길이 행복해요. 힘들어도 매일 데려다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아빠 될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김민서 · 경남 화정초등학교 3학년 6반 · 이 글은 경상남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믿음 8기 제자가 사랑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손영복 선생님. 저는 믿음 8기의 장난꾸러기였던 백혜진입니다.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노는 걸 즐거워했던 초등학교 6학년의 제 모습이 희미해질 정도로 시간이 6년이나 흘렀네요. 제 기억 속 선생님과 제 어릴 적 모습은 가물가물하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와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던 선생님은 1년 동안 함께 지내게 될 반 학생들을 '믿음 0기의 제자들'이라고 칭하셨고, 저는 자랑스럽게도 그런 선생님의 8기 제자입니다.

선생님, 아직 19년도 안 된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 아시나요? 남들보다 일찍 찾아온 사춘기에 주위 사람들 모두를 속 썩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어느 학교에나 있는 말쑥 꾸러기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교복보다 체육복이 더 편하다며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아침 조회 시간에 굳이 체육복을 입고 나가 애꿎은 선생님만 교장 선생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셨죠. 쉬는 시간 친구들이랑 놀다가 수업 시간 10분 늦게 뒷문으로 들어가 반 분위

기를 싸하게 만들었어도 죄송하다는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뒷동산에 올라가 고구마를 찌 먹고도 선생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며 거짓말했던, 이런 수많은 철없는 행동을 이제 와 돌이켜보니 아직도 부끄럽네요.

항상 저의 안 좋은 행동을 다 눈감아주셨던 선생님이 참다못해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시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저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비딱했습니다. 집에서는 얌전하기만 하던 딸이 학교에서는 정도를 넘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데 놀라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쫓겨났다는 그 상황이 무서워 문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우연히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이모 덕분에 금방 집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고 제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시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위로라기보다 사과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똑같은 말로, 똑같은 처벌로 혼이 났던 경험과 달리 제게 전화해 혼내서 미안하다며 저와 같이 울어주시던 선생님의 행동은 제게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물이 어떠한 처벌, 어떠한 잔소리보다 더 따갑고 아팠습니다. 제가 마음이 진정됐을 때 선생님은 저에게 “나는 너를 믿어. 혜진을 믿어”라는 말을 해주시고 통화를 마치셨지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울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 제 철없던 생활을 크게 반성하게 만들었고 이후 더 올바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가 게을러지거나 삐딱해지려 할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선생님을 못 뵈는 지 벌써 6년이 됩니다. 성적에, 공부에, 친구 관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힘든 고등학교 생활에서 제 활력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보다 그 행동을 반성하고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게끔 도와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서 초등학

교 시절을 회상하면 웃음이 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항상 제 사춘기에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대로 철없이 커서 즐거움만 좇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선생님을 속 썩였던 예전의 철없던 애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예능 PD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았던 저에게 선생님이 웃음을 심어주신 것처럼 저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여유로운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제게 정말 소중한 손영복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진심에 따똷함을 느낀 학생들은 누구나 바른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로 멋진 스승님이셨고 앞으로도 늘 존경받는 스승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당한 믿음 8기의 제자가 되어 뵈러 가겠습니다.

백혜진 ·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 ·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수상작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부르기만 해도 따듯해지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나 수민이야. 엄마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

중학교 때는 엄마와 같이 살면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활동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엄마의 잔소리도 피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그 시간이 꿀처럼 달고 짜릿했어.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와 엄마와 떨어져 생활하니 엄마의 잔소리도 그립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이 아닌 “수민아, 학교 가야지 늦었어. 아휴 아무튼 게을러서 큰일이야” 하며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도 그리워.

엄마, 나는 엄마가 늘 고마웠어. 엄마는 나에게 선생님이자 친구 같은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피아노, 미술, 태권도까지 학원 다니느라 바빴는데 나는 엄마랑 집에서 함께 공부하고 피아노와 내가 좋아하는 과학 실험까지 집에서 할 수 있었잖아. 과학관에도 자주 데려가 체험을 통해 익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숙제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짜증나는 일도 없었고 공부하는 것이 늘 즐겁고 재미있었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중학교 때까지 늘 1

등을 놓치지 않았고, 항상 학교 대표로 대회도 나가서 친구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사긴 했지만 내가 또 엄마 닮아서 인간성이 좋잖아.

과학교에 입학해서 솔직히 좋은 기분은 한 달도 못 갔던 것 같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수업 양과 과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같이 못하는 것이 없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계속 타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 옆에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딸 많이 힘들지?” 하며 안아줬을 텐데 싶어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잠이 안 오면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나는지 몰라.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목 인대가 늘어나 걷기 힘든 나를 업고 2주 동안이나 등하교 시켜주었던 일, 감기에 걸리면 늘 40도를 오르내리는 열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던 일, 맛있는 것이 생기면 아껴 두었다가 늘 내 입에 먼저 넣어주었던 일, 나에게는 늘 좋은 옷과 좋은 신발 사주면서 정작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 엄마는 늘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 잘 듣는 착한 딸이라고 자랑하지만 생각

해보면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 엄마, 그래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 올 아빠, 나의 영원한 첫사랑. 아빠, 요즘도 TV에서 딸 시집보내는 장면 나오면 울어? 죽어도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우기던 딸이 어느새 열여덟 살이 되었다며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다는 아빠가 나는 정말 좋아. 엄마가 좋다더니 이제 아빠냐고 하겠지만 잘 알잖아, 아빠는 나의 이상인 거. 아빠, 나는 다른 아빠들도 다 아빠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빠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무엇보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빠야.

아빠, 우리 수민이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요즘 열심히 운동한다고 했지? 내가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니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까지 아빠가 편안하게 월급 받으며 회사 생활 하는 거라 생각했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고. 정말 세상 물질 모

르는 바보 같았지? 앞으로는 아빠가 주는 용돈 아껴가며 소중하게 쓸게.

지금은 비록 엄마, 아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크게 웃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할게.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킬게.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엄마, 아빠. 그 응원 받아 열심히 할게.

엄마, 아빠 덕분에 이 딸이 어디 가도 기 안 죽고 당당하게 잘할 거라는 거 알지?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부르지만 해도 행복해지는 엄마, 아빠.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해.

이수민 ·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2학년 2반 · 이 글은 MBC 사장상 수상작입니다.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김남예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초록우산의 아동보호기관에 있었던 한 여학생입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의 방임으로 인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이 기억나네요. 저는 보호기관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많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 가장 많이였던 저는 매일 밤 울고 우울증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후에 온 동생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사고도 치고 울고 웃기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했던 터라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힘들었고 급작스러운 퇴소로 인해 말도 잘 못 나누고 퇴소했지만 저는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이 사고를 쳐도 예쁘게 봐주셨지요.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은 가물가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평생 기억할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봐야 몇몇 아이가 떠오르는 걸 보면 점점 잊히는 과거가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초록우산을 듣게 될 때마다 움찔거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아동을 사랑하자'라고 생각하는 단체일지는 몰라도 저는 따

뜻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방임으로 장염과 독감에 시달리며 자살을 생각하던 제 과거를 사라지게 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겨우 기억날 만한 지나간 아이가 되었는지 몰라도 선생님은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주시겠지요.

지금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초록우산을 만나면서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많이 변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잊히겠지만 초록우산이라는 이름과 선생님의 성함만큼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퇴소하면서 못 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만나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맡게 될 상처로 가득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아이들이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친구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뿐 아니라 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신 상담 선생님과 원예치료를 해주신 선생님도 감사했습니다. 같이 장구를 쳐주셨던 음악치료사 선생님도 감사했어요. 철없

고 반항기 가득한 그때의 저를 대하셨던 태도나 행동을 생각해보면 저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마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초록우산 재단에서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뵙고 고기를 사드리고 싶어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민경 · 경기분당경영고등학교 2학년 7반 · 이 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작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볍지만
따뜻한 종이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제가 타고 있는 할머니라는 종이비행기의
엔진 역할을 해주시는 바람이에요.

제겐 너무 소중한 주연 선생님께

전북 정주고등학교 2학년 2반 최은지

나의 바람, 종이비행기

인천 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4반 마채영

나의 나무, 당신의 나무

서울 동도중학교 2학년 7반 김에서

그리움이 닿는 곳에

경기 가평고등학교 2학년 4반 박은주

유난히도 힘든 날 지켜준 너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정재윤

제겐 너무 소중한 주연 선생님께

주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애제자 은지입니다. 선생님과 대화는 많이 나눠봤어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 왠지 모르게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꼭 선생님께 편지를 써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커다란 존재이시거든요. 제가 열다섯 살에 선생님을 처음 뵈었는데 벌써 18세가 되었으니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보냈네요. 3년 전으로 거슬러 가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를 회상하면 참 풋풋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영어 성적을 올리려고 찾아갔던 과외에서 레벨 테스트로 단어 시험을 봤는데 100개 중에 50개도 채 써내지 못했잖아요.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선생님 덕분에 얻게 된 네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성적이에요. 제가 그때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과목 하나를 특출하게 잘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저에게 영어라는 과목에 흥미를 붙이고 독해하는 재미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문장을 읽고 단순히 해

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왜 글 속에 들어가 있는지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영어에 흥미를 붙이니 자연스럽게 영어 성적도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도 영어이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도 영어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영문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대하실 때 제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존중해주셔서 항상 감사했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면 단순히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의 말투와 사고가 이제 저에게 전해져서 저도 남을 대할 때 그 순간을 진실하고 진심을 다해 보내려고 노력해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 중 가장 감동적이고 와 닿았던 말은 제게 주신 책에 붙여놓은 쪽지에 쓰여 있던 글이에요. '자신을 사랑

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애정하며, 온 마음과 인생을 행복으로 걸어가는 은지가 되길.' 이 글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을 잘 대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무거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직접 말씀으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제게 기운을 북돋아주셨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선생님을 통해 제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루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교훈을 얻고 난 뒤에는 일기 쓰는 습관도 들이고, 제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1~2학년

때에는 책을 꽤 읽었지만 점차 커가면서 멀리하게 되었던 저는 선생님을 만난 뒤로 책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책을 읽고 1시간 동안 평평우는 경험도 처음으로 해보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어두는 선생님의 습관을 따라 저도 책을 읽을 때는 항상 펜을 곁에 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글을 쓰는 재주가 정말 없어서 제대로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진심만큼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진심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애정하며, 온 마음과 인생을 행복으로 걸어가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최은지 · 전북 정주고등학교 2학년 2반 · 이 글은 문화일보 회장상 수상작입니다.

나의 바람, 종이비행기

엄마, 아빠, 할머니. 어버이날 소소하게 드린 안개꽃 꽃다발과 편지 두 장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흐뭇하게 웃으시던 아빠, 조용히 편지만 읽으시던 엄마 그리고 웃고 우셨던 할머니. 너무 소박한 선물에 조금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에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그동안 담아둔 제 마음을 쓰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제 바람입니다. 할머니는 종이비행기입니다. 저는 지금 종이비행기 위에서 미래를 꿈꾸는 소녀예요.

할머니는 제 어린 시절 가장 많은 기억을 차지하는 분이예요. 엄마, 아빠가 바쁠 때 위아래 층에 사시던 할머니가 유치원 통학도 도와주시고, 놀이터에 친구들과 놀러 가면 항상 벤치에 앉아 제가 다 놀고 집에 갈 때까지 저를 지켜봐주셨어요. 제가 15세가 된 지금도 속이 갑갑할 때, 부모님과 싸웠을 때면 할머니를 찾아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안개꽃. 저와 하원하면서 지나가는 꽃집에서 항상 바라보고 그냥 가시던 게 생각나 이번 어버이날을 기념해 선물해보았어요. 너무나 작고 소소한 선물이었는에도 우시며 고맙다고 해주신 그 한마

디가 너무 짠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할머니는 제가 날아갈 수 있게, 또 날아가면서 사고가 나거나 흔들려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저의 운전대가 되어 저를 안정시키고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볍지만 따뜻한 종이비행기랍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안개꽃, 수국, 국화 그리고 보라색. 항상 기억할게요.

종이비행기가 있으면 날아가게 해주는 바람도 필요하죠. 이제 저의 바람인 엄마,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보다 할머니의 기억이 더 컸던 건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달리 외로움을 많이 타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어요. 이때 엄마, 아빠가 저를 먼저 알아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해주신 “자기 생각을 주위 사람에게 묻어가지 말고 제대로 표현해”라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의 불씨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빠와 오징어를 먹으며 9시 뉴스를 보는데요. 아빠와는 정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지난 번 아빠의 권유로 온 가족이 같이 간 촛불집회는 제가 처음으로 정의감을 느낀 자리였어요.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사람들의 연설을 듣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정의'라는 것에 대해 실감했어요. 그 후로 뉴스를 더 자주 꾸준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저는 제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아빠는 제가 타고 있는 할머니라는 종이비행기의 엔진 역할을 해주시는 바람이에요. 언젠가는 종이비행기와 바람이 없이도 제 뜻을 펼치고 사회라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바라봐주세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종이비행기와 바람이 되어 제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녀딸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성 좋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처럼 자랄게요.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며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버이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할머니, 사랑합니다.

마채영 · 인천 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4반 · 이 글은 EBS 사장상 수상작입니다.

나의 나무, 당신의 나무

안녕, 아빠! 아빠의 첫째 딸이자 아빠의 사랑인 예서야. 아빠 휴대전화 속에 언제나 나의 이름은 ‘내 사랑 첫째 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사실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깐 워낙 오랜만에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어서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

작년 생일 때 써준 편지가 마지막이었던가? 항상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너무나도 평범한 말 한마디를 못 해준 것 같아 미안해. 난 유독 아빠 앞에만 서면 이런 표현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빠에게 고맙지 않은 것도, 미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난 언제나 아빠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내 옆을 묵묵히 지켜주며 조용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아빠에게 언제나 고마워. 또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힘들게 일하는 아빠를 보며 너무 미안하고 그럴 때마다 “아빠, 힘내세요!” 이 한마디 못 건넨 나라서 더 미안해, 아빠. 앞으로는 표현도 더 잘하는 아빠 사랑 첫째 딸이 될게요.

이 편지를 통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묵혀 두었던 말을 아빠에게 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 며칠 전 시험 기간이었을 때 아빠가 나한테 건네준 책 기억나? 그 책은 다름 아닌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었어. 아빠는 “너 이 작가 좋아하잖아”라는 짧은 말과 함께 책을 건네줬어. 처음엔 시험 기간에 왜 이런 걸 사다 주나 싶어 괜한 짜증이 났지만 계속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었어. 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어. 아빠는 시험 기간이라 웃음을 잃은 내가 웃기를 바라며 그 책을 사 온 거잖아. 여기서 난 아빠가 항상 내가 웃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느낄 수 있었어.

아빠, 정말로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아빠가 너무나도 좋고, 또 너무나도 사랑해.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것처럼 앞으로 나도 아빠의 버팀목이 되어 아빠가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아빠에게 힘이 되어줄게. 아빠가 병원에 누워계신 할머니 때문에 슬퍼할 때 난 더욱더 아빠의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병원에서 할머니를 한참 바

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난 그런 아버지의 눈에서 슬픔을 느껴. 물론 나도 할머니가 누워계셔서 슬프지만 아빠한테는 엄마가 누워계시는 거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돼. 아버지의 눈이 슬퍼할 때마다 나도 아무 말 없이 아빠 옆에 서서 함께 슬퍼할게. 아빠, 힘내!

아빠는 항상 나와 어딘가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언제나 학업보다는 여행을 중시하는 아빠라서 괜히 다른 아빠들과는 다른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여행이 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어. 외국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날 믿어준 거지? 그 믿음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믿음 덕분에 내가 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맙고, 사랑해, 아빠! 아빠! 아빠는 나에게 나무와도 같은 존재야. 내가 지칠 때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을 내어주고, 내가 배고플 때는 사

과를 내어주는 그런 존재.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행복하고 또 좋아. 앞으로 지금처럼 나무 같은 아빠가 되어줘. 나도 아빠의 나무가 되어줄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김에서 · 서울 동도중학교 2학년 7반 · 이 글은 교원그룹상 수상작입니다.

그리움이 닿는 곳에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첫 문장의 마침표를 찍는 데에만 3일이 걸렸는데 긴 고심 끝에 적은 제 그리움의 표현이 겨우 저런 투박한 문장인 것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선생님을 못 뵈지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네요. 사실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실지에 대해, 또 제 그리움이 뜬금없다 생각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큰 종이를 받고 줄곧 선생님 생각만 났어요. 가볍게 시작된 편지 쓰기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글을 전할 다른 누군가를 열심히 생각해봤지만 제가 이 선을 매울 수 있는 대상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해 선생님께 제 편지를 바칩니다.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은 기간이 긴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뵈며 정의 깊이는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례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평중학교 3학년 1반, 2016년도에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선생님께서

는 기억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1반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이 저희와 함께한 추억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말을 좀 안 들었어야죠. 물론 몇몇 친구들의 경솔한 언행과 행동은 여전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내려간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지 못한 것,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화를 내지 않은 것. 그때 솔직히 표현했다면 이제 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시기의 선생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선생님은 매번 제 글을 칭찬해주셨고, 곱씹어주셨고, 기다려주셨죠. 글에 대한 보상은 익숙했지만 아무래도 제게 필요했던 건 이해였나 봅니다. 전쟁에 희생된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를 한 날 제출하려고 내려간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과 제 어깨 위로 올라왔던 손을 저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글과 함께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 중 그때 처음으로 작가의 꿈을 꾀했습니다. 글을 좋아하고 또 잘 쓰니 글을 쓰라는 말은 했어도 너의 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으니 글을 써야 한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해주

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왔다”는 말과 함께 흘리신 눈물은 저에게로 돌아와 꿈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글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쓰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저도 뉴욕제과점의 그분처럼 연필로 쓸 걸 그랬나 봐요. 사실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의 마지막 국어 수업을 들으며 울 뻔했는데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까닭은 다시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전근 가시는 분들을 그렇게나 많이 봐놓고도 왜 선생님은 계속 남아계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때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나오려고 하네요. 사실 선생님께서 가평고등학교에 한 번 오셨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는데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버리실 줄 알았다면 그냥 내려갈 걸 그랬네요.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문학작품에 대한 열정이 그립습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계시겠지요. 선생님은 수업이 재미없다는 말에 자책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선생님과 함께한 그 어떤 시간도 재미있고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체로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박은주 · 경기 가평고등학교 2학년 4반 · 이 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상 수상작입니다.

유난히도 힘든 날 지켜준 너

안녕, 나예야. 이런 방식으로 나예에게 말하는 건 세 번째인가? 생일 때 말고는 나예에게 편지를 쓴 적은 없는 것 같네. 학교 게시판에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하는 글을 보자마자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 물론 다른 선생님들과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예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너인 것 같아.

굳이 설명하자면 작년에 너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일이 가장 주된 이유이지 않을까. 나예에게 작년은 유난히도 힘든 나날이었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 이외의 사정이 파도 밀려오듯 나를 덮쳐서 나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이겨내지 못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어.

어느 날 힘든 일이 일어나고 혼자 숨죽여 울다가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네가, 너의 번호가 생각났어. 그때는 밤늦은 시간이어서 전화하면 너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카톡으로 다음 날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너는 무슨 말이나고 묻지도, 그 이상 따지지도 않고 나의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줬지.

그 순간에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 것 같았어. 혼자 버티기에는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를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생긴 기분이었으니까. 다음 날이 되고 안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는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꺼내려 입을 열자마자 눈물이 고이며 울음이 나오더라. 나는 남 앞에서, 그리고 학교라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되었어. 상황이 상황이고 그리고 그 남이라는 사람이 너라서 그런가?

그 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위로해줘서 고마웠어. 너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원래 같이 갈 친구도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었는데 혹여나 내 이야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너의 일상을 망치면 어떡하나 그날 널 만나기 전까지 고민했는데 너는 그 고민이 소용없을 정도로 가만히 나를 위로해줬어. 그때는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갑작스럽게 찾아간 상황이었는데 위로해줘서 고마워. 너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줘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줘서 고마워. 그 후 다른 날도, 또 다른 날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워. 만약 너 같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내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현재의 나는 이렇지 않을 거야.

사실 작년 말고도 너에게 고마운 일이 많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을지 몰랐어.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이 진짜이긴 한가 봐. 어느 순간부터 같이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관심 분야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같이 놀러 다니다가 더 잘 맞는 사이란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계속 연락하고 놀고 만나면서 지금처럼 친해진 것 같아.

2년 반이 넘도록 너랑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너에게 느꼈던 감정은 안락함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무언가 이상해 보인다. 그래도 내가 말하는 안락함은 나예랑 같이 있고 같이 얘기하면 부족한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안락함이야. 나예가 나에게 맞춰주며 그런 생각이 들도

록 해준 건가? 나예랑 지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 가끔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에도 네가 특유의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런 기분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나예도 나로부터 그런 느낌을 느꼈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나예랑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같이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 외에도 체육대회나 현장체험학습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많이 보여. 늘 언제나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예야. 만약 고등학교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인연을 고르라고 하면 나는 고민 없이 너를 고를 거야. 너와 관련된 모든 추억은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고, 늘 내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 더 할 말이 많지만 그 말은 직접 만나서, 아니면 손으로 쓴 편지로 다음 생일 때 전해주고 싶어. 마침 네 생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예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예야.

정재윤 ·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 이 글은 장려상 수상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가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들어갑니다.